월/요/광/장

김 배 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선택

지난해 쌀 농사는 사상 최고의 대풍이었다. 태풍 피해 한번 없이 기상여건이 좋아 2008년에 이어 연이은 풍작을 기록했다.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농사의 결과가 풍년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농민들은 땀흘린 보람을 찾고 웃음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쌀 농가들은 그렇지 않다. 사상 유래 없는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시름이 깊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쌀 수확기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였던 가격은 12월 중순 이후 다행히 정체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 가마 당 약 14만 원(전국 평균) 수준으로 2008년산 같은 시기 가격보다 무려 2만 원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시장수급상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전보다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쌀 가격하락은 소비문제를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결정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 쌀 농업에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던 논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합하여 2005년부터 새롭게 개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고정형과 목표가격을 설정해 수확기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의 85% 수준까지 보전하는 변동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하기에 이 제도는 설계 당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생산중립적 제도로 고안되었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등 국제적인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은 제도를 고안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쌀 농가와 쌀 농업을 위한 이 제도는 불행하게도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보전직불제중 변동형의 생산연계성과 목표가격의 하방경직성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변동형 직불제의 생산연계성 문제는 이 제도가 가격하락시 목표가격과의 차이 분을 보전해주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생산중립이라는 설계의도와는 달리 농가의 영농의향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목표가격의 하방경직성 문제는 목표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이에 따라 쌀 가격도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어 목표가격을 낮추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는 논의의 초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에 이들 문제가 쌀 공급과잉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어도 공급과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쌀의 공급과잉의 문제는 쌀 시장에서 수급원리에 따른 가격기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쌀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데 정책이나 제도에 의한 의도적인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산지가격은 농협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과 농가 간에 결정된다. 즉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급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와 산지유통업체 간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실제 2008년산 쌀의 경우 보기 드문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때 가격이 80㎏ 가마 당 이전연도에 비해 오히려 만원 이상 높게 형성된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시 농협 조합장 선거와 맞물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쌀 가격이 시장의 수급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가격의 결정도 정치적인 의사에 앞서 시장수급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쌀 농업과 쌀 농가를 위하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은 또한 지속적인 수요 감소의 문제, 쌀 농가의 고령화 문제, 그리고 현재의 쌀 의무수입 체제를 관세화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나같이 중대하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내용과 여건을 살펴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쌀 산업도 발전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인년 새해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단체 모두 단체간 갈등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에, 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택에 중지를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 없어야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올해 예산안에 지역 현안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사업인 문화수도조성사업과 F1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수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CT(문화콘텐츠기술) 연구원 건립 예산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정부 예산에는 누락됐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세워진 20억원으로 CT연구원 광주건립을 확정하려던 광주시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도 700억원에서 정부안대로 200억원만 반영돼 전당 건립 사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올 10월로 예정된 F1 대회 경주장 건설비용이 대폭 삭감된 것은 의외다. 전남도는 정부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촉박한 대회 일정이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도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현안 예산의 대규모 삭감은 예견됐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상임위에서 애써 확보한 지역 예산조차 줄줄이 삭감되거나 누락된 것이다. 일부 지역출신 의원들이 한나라당 예결소위 위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호남고속철도나 광주 U대회 처럼 지역 상징성이 큰 사업의 예산까지 삭감한 한나라당의 처사는 지역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확보한 지역현안 예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는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끝 안보이는 '고용 한파' 특단의 대책 세워라

고용 한파가 끝이 안 보인다. 더욱이 올 1, 2월 고용시장은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용 대란을 해결할 묘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희망근로 등 공공 일자리 사업마저 중단해 오히려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은 최악의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 1~2월 희망 근로 잠정 중단으로 중·장년과 노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2월에는 50만~60만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한파의 여파는 당장 실업자 증가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7만1천88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7.3%나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올 1, 2월에 더욱 증가할 게 뻔하다.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밥벌이가 막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이 부진하면 소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 해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고용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 간 실물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고용 한파는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고용이 부진하면 신 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 중산층 복원을 어렵게 한다. 경기회복의 핵심인 내수진작을 저해한다.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좋은 서민생활 안정책이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조 칼럼

임 내 현

법집행기관과 문화 예술

며칠 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몇 분들과 오찬을 하면서 어느 TV방송국 간부출신으로부터 교도소 내 교화활동과 음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삼엄한 경비망 속에서 세상과 격리된 교도소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방송되자 수감자들이 매우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종교인 등에 의한 교화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동감을 표시하면서 과거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우선 1997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때의 일이다. 당시 김천소년교도소에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위문품으로 제공하고 70년대 유명한 통기타 가수로서 신실한 교회 장로인 윤형주씨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겸한 신앙간증의 자리를 만들었다.

다음은 199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때의 일이다. 순천교도소에 어머니 합창단 공연을 주선한 뒤 다음과 같은 격려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가 중요하다. 기능교육을 잘 받아 출소 후 취업에 대비하고 사회생활 중 '욱' 하는 심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마음의 수양을 닦자." 며칠 후 어느 수감자로부터 그날의 아름다운 음악회와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한 강연에 감동을 받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다.

이것들은 법집행 대상자에 대한 교화의 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례이나 나아가서는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나 검찰 일반직원, 출입국관리직원, 교도소직원, 소년원직원 등은 직무의 내용이 사람을 조사하고 신체를 구인, 구금하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일이 많아 정서가 메마르기 쉽다.

필자는 2002년 전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매달 적당한 예술공연을 지정한 후 희망자를 파악하여 저녁식사와 차편, 공연티켓 등을 제공하고 함께 관람했다.

대구고검장으로 부임 후 전주지검 직원으로부터 '이제는 가족들과 공연을 보러 다닌다. 이를 통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여기에 대구고검 총무과장을 하던 분으로부터 '친목계 날에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추가하였더니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다. 오페라, 뮤지컬, 국악 등 음악 공연 관람이 보통이나 연극, 미술전람회관람의 경우도 있고 광주고검장 근무시인 2005년 정월대보름에는 광주시 대촌의 쥐불놀이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되어서는 경기도문화예술단과 협약을 맺고 피교육대상 법무공무원과 법무연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거의 전부가 공연들에 대해 큰 만족도를 표했다.

그 후 검찰청이나 법원 등 법집행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합창단을 조직했다거나 음악회나 서화전의 개최 등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퍽 반갑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법집행관련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함양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 요망된다. 특별히 문화예술의 전통이 깊은 예향 광주·전남의 기관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 고

박 향

'2010 건강 챙기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새해가 밝았다. 새 밀레니엄의 첫 1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지난 10년은 국내외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다. 전쟁, 테러, 기아, 자연재해, 전염병 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중증급성호흡기질환(SARS),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같은 새로운 질병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20세기 초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전면공세를 감행한 신종바이러스의 기세에 깜짝 놀란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세운 방어대책은 단순명료했다. 손 씻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와 면역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예방백신 우선 접종이 그것이다.

방어대책의 근간은 줄탁동시(啐啄同時)에서 출발했다. 어미닭이 알을 품는 21일 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난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껍질을 쪼아 댄다. 어미 닭 역시 바깥쪽에서 정성스레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이러한 병아리와 어미 닭의 노력이 3시간 안에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새로운 생명은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병극복을 위한 환자들의 노력은 병아리의 쪼아 댐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보건정책들과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진료행위는 어미닭의 쪼아 댐이라 하겠다.

새해 계획 중 뺄 수 없는 것은 건강 계획일 것이다. 담배를 끊겠다, 술을 적당히 마시겠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다, 음식을 골고루 먹되 육류보다는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겠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겠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플랜이 많다. 모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물론 굳은 의지가 있어야 실천 가능한 계획들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광주시와 각 구청 보건소가 금연·절주·운동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이유다.

담배를 끊기로 했다면 구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활용하자. 보건소에서는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추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나침반도 제공한다. 무등산 옛길 등 생활터 주변 산책로, 소공원 및 근린 운동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맘만 잘 먹고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알뜰히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들 신년 건강계획 세우셨나요? 그럼 '2010 건강 챙기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광주시 보건위생과장〉

청소년 감성교육에 좋은 우표 수집 권장을

우표는 국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도안이 그림으로 나오고 그 출생에 관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표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그 발행 배경을 알아가고 정통성을 이해하려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철학의 깊이는 깊어져 갈 것이다.

현재 우표는 발행되고 사용이 되고 있으나 이메일의 보급으로 인해서 편지는 오래된 문화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고 설령 오고가는 우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표는 사용되어 지지 않고 있으며 다기능 스티커가 사용이 되어 우체국에서 되레 우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우표를 많이 사용하자는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때문에 우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교육의 일환으로 삼는다면 좀 더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정진우·서광주 우체국

無 等 鼓

가정 헌법

명망 있는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오는 조상의 가르침이 있다. 집안 어른이 자손들에게 주는 윤리적 지침인 가훈(家訓)이 그것이다. 가족들이 지켜야할 도덕적 덕목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요령을 일러준 게 많았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 안씨가훈(顔氏家訓)과 송나라 때의 주자가훈(朱子家訓), 원나라 때 정씨가범(程氏家範) 등이 본보기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유신 집안의 '충효(忠孝)'나 최영 가문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등은 잘 알려져 있다.

400년에 걸쳐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경주 최부자 집안의 가훈은 그 안에 담긴 독특한 경영 철학 때문에 눈길을 끈다.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를 포함한 여섯 가지 원칙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압축해 놓은 듯하다.

법무부는 가정과 법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 사례들을 보면 '하루에 한 번 전화·문자·언어 등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설거지·빨래·청소·정리정돈 앞에 평등하다'는 등 그 내용이 주는 무게는 전래의 가훈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의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온 가족이 참여해 함께 만든 것이라는 점도 큰 차이다.

지금까지 참여한 1천여 가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1조에 '사랑'을 담은 경우가 28.4%로 가장 많았고, 화목(9.9%)과 행복(9.1%), 존중(8.1%), 신뢰(7.2%), 소통(6.7%)이 뒤를 이었다.

경인년 벽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가족 모두가 함께 세운 원칙과 가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의 푯대'가 되어줄 것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